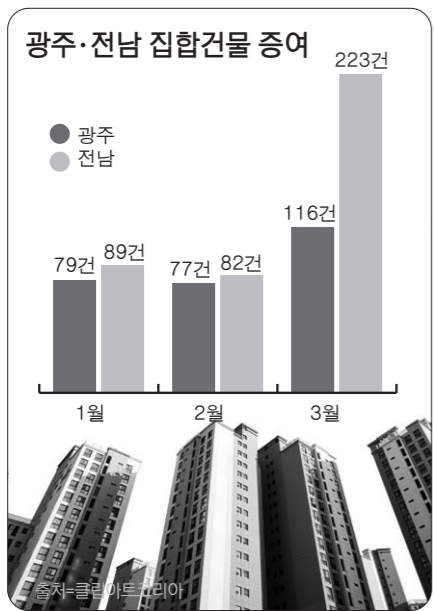


보유세 부담에 집합건물 매매 대신 증여



지난달 광주 116건·전남 223건...전국 5000건 넘어 “세 부담·거래 위축 영향...당분간 증가세 이어질 것”

지난달 광주·전남 지역에서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가 급증하며 관련 통계가 일제히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보유세 부담을 미리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매매 대신 증여로 선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9일 대법원 등기정보공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지역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증여 건수는 11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12월(132건)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올해 1월(79건)과 2월(77건)과 비교하면 50%가량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달(73건)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늘었다. 그동안 60~90건대를 유지하던 흐름에서 뚜렷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전남지역은 증가폭이 더욱 가팔랐다. 지난달 증여 건수는 223건으로, 1월(89건)과 2월(82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등기정보공장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전남 역시 지난해까지 70

~90건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지난달을 기점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세계 환경 변화와 시장 침체가 맞물리면서 증여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균 세무법인 다솔누리 대표는 “광주·전남의 경우 양도소득세 증가 대상 지역은 아니지만 보유세가 올라갈 것을 대비해 미리 매매나 증여로 재산을 분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달 증여가 급증한 것도 매매로 처분하려고 해도 잘 팔리지 않아 증여로 돌려 질세를 노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총 5094건으로 5000건을 넘어서며 2022년 12월(9342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1345건)은 주택 수가 더 많은 경기(1251건)보다도 증여 건수가 많아 눈길을 끌었다. 다음달 9일 양도소득세 증가 유예 종료로 앞두고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 줄이기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해 세 부담을 낮추려는 전라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더해지면, 노년층을 중심으로 자녀에게 주택을 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이 6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월(390건) 대비 62% 증가했다. 이어 60대 460건, 50대 248건 순이었다. 특히 40대는 78건으로 전월(42건)보다 85.7%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수증인은 30대가 419건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85건, 50대 270건, 20대 228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 광산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매매 물량이 쌓이는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증여로 방향을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유세 부담이 현실화될 경우 증여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

광주시, 여행사 220곳 ‘테마관광 상품’ 지원

업체당 200만원 지원·최대 300만원 추가 인센티브

광주시는 무안국제공항 장기 폐쇄로 위축된 지역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테마별 특화여행상품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여행사 220곳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광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

련됐다. 모집 대상은 2024년 12월 29일 여행기 참가 이전에 등록돼 현재까지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광주지역 여행사다. 시는 다음달 8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총 220개 여행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각각 200만원의 여행상품 기획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 여행사는 개발한 상품을 광주관광 누리집 ‘오매광주’에 등록해야 하며, 이후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특히 판매 실적이 우수한 여행사에는 사후 개발비(홍보·마케팅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미식, 역사, 인문, 예술, 야간관광, 웰니스, 축제 등 다양한 테마형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기반으로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여행사는 전자우편,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결과는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모집 관련 세부 사항은 광주시 및 광주관광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광주관광공사 지역관광팀에 문의하면 된다. 이송규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무안국제공항 장기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송규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은행은 오는 7월 31일까지 인크커피(INC COFFEE)와 협업해 비대면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광주은행×인크커피 KIA타이거즈 우승기원에금 이벤트’를 실시한다.

광주은행, ‘KIA타이거즈우승기원에금’ 이벤트 인크커피와 협업...비대면 가입 고객 대상 커피 쿠폰 증정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오는 7월 31일까지 인크커피(INC COFFEE)와 협업해 비대면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광주은행×인크커피 KIA타이거즈 우승기원에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기간 내 광주Wa뱅크 앱이나 모바일웹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KIA타이거즈 우승기원에금’에 가입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광주은행은 선착순 1000명에게 인크커피 아메리카노 쿠폰 1매를 제공하며, 이 가운데 신규 금액 1000만원 이상 가입 고객 80명을 추첨해 인크커피 1만원권 쿠폰을 추가로 증정할 예정이다. ‘KIA타이거즈 우승기원에금’은 지역 연고 구단인 KIA타이거즈의 V13 우승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출시된 광주은행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 상품이다. 지역민과

함께 응원하는 참여형 금융상품으로 매년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으며, 올해 역시 고객 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혜택과 참여의 재미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가입 금액은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1인 1개까지 가능하다. 우대금리를 포함한 최고금리는 연 3.25%, 기본금리는 연 2.70%다. 이벤트 및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이나 광주Wa뱅크, 광주은행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상용 광주은행 신성장사업장은 “이번 이벤트는 지역 대표 구단을 응원하는 마음과 고객 혜택을 함께 담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이벤트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 최고 9개월 만...원화대출 0.62%

지난 2월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이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62%로, 전월(0.56%) 대비 0.06%p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5월(0.6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내외 불안 요인 확대와 경기 둔화 영향으로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02%로, 역시 지난해 5월(1.0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규 연체채권 발생액은 3조원으로 전월(2조8000억원)보다 늘며 두 달 연속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이었다. 2월 말 신규 연체율은 0.12%로 전월(0.11%)보다 0.01%p 상승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최근 대창운수주와 ㈜창해에탄올을 찾아 감사장과 기념 현판을 전달했다.

광주국세청, ‘60년 장수기업’ 성실납세 격려

국세청 60주년 맞아 9개 기업에 기념현판 수여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학선)은 지난 17일 1966년에 사업을 시작한 지역 내 법인·개인 9개 업체를 방문해 ‘60년 장수기업’ 기념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아 창업 이후 60년간 성실한 납세로 국가재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학선 청장은 대창운수(대표이사 고희성)와 ㈜창해에탄올(대표이사 이연희)을 직접 찾아 ‘감사장’과 ‘기념 현판’을 전달했다. 김학선 청장은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준 데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국세청은 성실납세 기업이 100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

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법인의 정하권(주), ㈜한국교통, 이리택시, 광성관광, 광산약국, 설도주유소, 카페 탐 등 7개 업체에도 감사장과 기념 현판이 전달됐다. 대창운수주는 1966년 4월 15일 설립된 광주지역 시내버스 운송업체로, 지난 60년간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해왔다. ㈜창해에탄올은 1966년 5월 26일 설립된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을 생산하며 국내 주정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전남도, 중기 취업 청년 학자금대출 지원

6월 5일까지...50여명 선정

전남도는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6월 5일까지 대상자를 신청받는다.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2020년부터 시작해 총 596명에게 6억원의 지원을 했다. 공고일(4월1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전남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현재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상환

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6월 5일까지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에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6~7월 중 지원 대상자 50여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선상환 후지원 방식으로 분기마다 개인별 학자금 대출 상환 내역을 확인한 후 월 최대 10만원, 연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림 기자 holbul@**

농협은행, ‘지방 정착 금융 패키지’ 시행 비수도권 대상 우대금리·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NH농협은행은 이달 말부터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방 정착 금융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는 비수도권 소재 주택담보대출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총 1조원 한도로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핵심은 금융비용 부담 완화다. 농협은행은 우대금리 0.2%p를 신설하고, 중도상환예약을 전액 면제하는 한편 고객이 부담해야 할 인지도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비수도권 전세대출의 영업점 전결 한도를 확대해 대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금 지원 속도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농협은행은 전국 단위의 총합영 영업망과 축적된 비수도권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정착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

는 금융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은 결국 사람들이 지역에 안정적인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농협은행은 지역경제 최일선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금융회사 지역투자 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해당 평가는 금융회사의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서민금융 공급, 금융 인프라 구축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급고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된다. **이송규 기자 photo25@gwangnam.co.kr**